

제16회 농촌선교주일

2022년 9월 18일 주일

농촌선교주일 자료집

"함께 돌봄으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

표지그림은 <https://pngtree.com>의 588ku 작품입니다.



목 차

.....	
목회서신 이철 감독회장	1
주제해설	4
농촌선교주일선포식 호소문	14
.....	
공동기도문	17
교독문	19
신앙고백 : 농촌교회신조	20
.....	
설교문	
- 농촌교회 설교문	21
- 도시교회 설교문	27



감독회장 이철 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국내외 모든 감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가을의 풍성한 기쁨과 열매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있었던 수해였지만, 올해는 도심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너무도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 아픔들이 가을과 함께 충실히 익어가길 기도합니다. 아프고 땀 흘렸던 만큼 옹골찬 열매를 기대하는 가을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택을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결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올해도 풍성한 결실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한 농부들과 어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농어촌교회마다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농어촌교회는 도시교회의 뿌리입니다. 농부는 생명을 가꾸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은 피해를 입고, 점점 고향의 꿈과 추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물을 길러 열매 맺기까지의 농부가 흘리는 땀방울과 농부의 마음을 아는 오늘날의 농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7회 총회에서는 농촌선교주일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16회 농촌선교주일은 9월 18일(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온 감리교회가 농어촌현실을 기억하고 농어촌선교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농어촌선교주일은 농어촌교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입니다. 단지 소외된 농어촌교회에 대해 손길을 나누는 일 뿐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가뭄으로 인한 생산악화로 인해 식량공급난을 겪고 식량문제로 국가와 정부의 안위가 흔들리는 식량안보시대인 지금 환경과 생명, 공동체라는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농어촌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선교적 의제로 삼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친환경생산물직거래를 비롯해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형 농장운영, 친환경농사체험, 도시민이 ‘자연환경이 아름다움 농어촌지역을 방문하여 자연, 문화, 사람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류형 여가활동’인 ‘그린 투어

리즘(green tourism)’ 계획도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농어촌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바라기는 농촌선교주일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농어민들의 심정을 담아, 생명을 사랑하는 의지를 담아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어촌교회를 구체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고, 고향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감사를 고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로 평화로운 세상과 ‘아이들의 건강’으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빕니다.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자! 요한복음 15장 1~12절

이성호 박사 | 연세대학교

1) 들어가며

2022년 7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소위 '신3고(新三高)' 시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놓았고 이후 찾아온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더욱 큰 위기로 만드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다.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천연 가스 뿐만 아니라 곡물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¹⁾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가뭄으로 인한 밀 생산 악화를 이유로 밀의 수출을 지난 5월부터 금지했다.

1) 김충범, “(안 잡히는 물가①)고유가·고금리·고물가 '3고 리스크' 해법 안 보인다,” 뉴스토마토, 2022년 6월 19일자.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9384&inflow=D> (2022년 7월 8일에 접속).

식량 공급난으로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대부분의 밀을 수입했던 스리랑카의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총리까지 사임하였다.²⁾ 자국의 식량 부족을 예상해 식량 수출을 금지하고 식량문제로 국가와 정부의 안위가 흔들리는 시대이다. 말로만 듣던 식량안보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불을 넘어섰고 2021년에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대한민국은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있고 식량주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이다. 1970년대에 쌀을 제외하더라도 곡물 자급률은 80.4%였으나 2004년도에는 26.8%로 현저히 줄어들었다.³⁾ 남재준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2022년 현재 곡물 자급률이 20%도 안 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10년 안에 개발도상국과 같은 식량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는 반면 농산어촌 마을들은 붕괴하거나 사라져 가고 있다. 남재준 소장은 “국내 농경지는 매년 12% 감소 추세”이며 “2020년 기준 농가의 70%는 농업으로 얻는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상황에서 “농경지뿐 아니라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식량자급률은 지금 수준의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⁴⁾

2) 신정원, “‘식량위기’ 큰일났다, 지구촌 곳곳서 시위·대란…내년에도 '경고음,’” 뉴시스, 2022년 5월 15 일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5_001871528&clD=10101&plD=10100 (2022년 7월 8일에 접속).

3) 이명현, “식량안보의 개념정립과 실천전략,” 권영근 외, 『농업 농촌의 이해』 (서울: 박영출판사, 2006), 101.

4) 이소연, “한국 식량자급률 20%도 안돼… 10년 안에 식량위기 겪을수도,” 동아일보, 2022년 6월 30일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30/114213657/1> (2022년 7월 8일에 접속).

2) 말씀 이해하기

이렇게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농산어촌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깊이 숙고해야 할 여러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농산어촌 교회와 도시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요한복음 14장-16장은 소위 고별설교로 불리는데 이 때에 예수님은 로마 당국에 체포된 후 고초와 죽임 당할 것을 직감하고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과 당부를 전하고 계신다. 그 맥락 속에서 바라 볼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승의 부재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여 다가 올 고난을 함께 극복해가기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고난이 다가오는 현 시국에 비추어 볼 때 이 본문은 도시 교회와 농산어촌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은 농촌선교주일에 참으로 어울리는 말씀이다. 두 가지 의미가 눈에 띈다.

첫째,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농사를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농업과 목축업이 삶의 주요 기반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는 말씀은 무척 자연스럽게 들렸을 것이다. 작물을 길러 열매 맺기까지의 농부가 흘리는 땀방울과 농부의 마음을 아는 오늘날의 농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남다를 것이다. 반면에 포도의 재배과정은 물론 포도나무의 생김새조차 익숙하지 않은 도시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아무래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도시의 규모 있고 세련된 교회를 찾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농산어촌 교회에 숨겨져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둘째,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는 궁극적인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 농부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가꾸고 키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처럼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요 15:4) 우리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은 생명이자 창조주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대한 비유 차원을 넘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자연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촘촘히 얽힌 관계로 인해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은 지구별 생태계의 기본 원리이다. 이를 신앙적 차원에서 이해해보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측면에서만 우리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피조물들은 자연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창조신앙에 따라 우리는 농산어촌이 자연 없이 존립할 수 없고 도시는 농어산촌 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요한복음 15장은 관계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부 모습을 보여준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에 우리를 포함한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이는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13장의 세족식)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바와(15장 9절) 분명 연결된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 안에서 거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곧 당신의 계명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15장 9절, 12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서 농촌선교주일에 필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로서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듯이, 도시 교회와 농산어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적 행위이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가 의무와 당위에서만 비롯된다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도시 교회가 농산어촌 교회와 유대관계를 맺고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논의되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도시 교회는 도움을 주는 자이고 농산어촌 교회는 도움을 받는 자라는 일방적 관계 설정이 우리 안에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 도식을 피하려면 사랑의 근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사랑은 상호관계와 상호나눔을 전제로 한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15장 12절)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돌봄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부부관계, 사제관계, 교우관계 등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칭찬, 격려, 지지, 존중 등의 긍정적 행위와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서로 간에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3) 상생의 길 탐구

과연 얼마나 많은 도시 교회 성도들이 농산어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까? 어쩌면 넉넉한 도시 교회가 궁핍한 농산어촌 교회를 돕고 있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행위는 분명 좋은 행위이고 신앙적 실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동등하지 않은 위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도시 교회와 농산어촌 교회가 지속적이고 평등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와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구체적 사랑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한다.

사실, 현대 도시는 도시인들의 존재 기반이 자연이며 생존여부가 농산어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도시인들로 하여금 잊고 살아가게 만든다. 오히려 도시는 무한히 확장되어 자연을 파괴하고 농산어촌을 도시화, 공장화한다. 소비문화에 익숙한 도시인들은 국내에 농수산물미 부족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소비편의주의는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이 갈수록 무기화되는 현 시기에 위험한 사고일 수 있다. 우리가 자연과 농산어촌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 자연과 농산어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존재의 상실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 교회의 사명이 존재한다.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시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자연과 농산어촌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시교회 성도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농산어촌 교회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실질적 방법으로 도시 교회와 농산어촌 교회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랑은 당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구체적인 감정과 교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맺어진 신뢰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도시 교회와 농산어촌 교회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상호 호혜적 관계, 상호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실질적 방안들을 잠시 살펴보겠다.

첫째, 상호 호혜적 관계는 구체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도시 교회가 금전적으로 농산어촌 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은 필요하지만 상부상조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 교회만이 농산어촌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교회가 도시 교회를 도울 수 있다. 돕고 베푸는 일이 반드시 물질이나 금전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찾아보면 도시가 농어산촌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가 오는 현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농산어촌 교회도 열악한 상황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인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와 유산을 지역주민, 후세대뿐만 아니라 도시 교회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과 비전을 바라보면 좋겠다. 도시 교회 또한 농산어촌 교회들을 후원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혜적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보다는 농산어촌 교회들과 협력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일부 도시 교회들과 농산어촌 교회들이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교류하는 기존의 전통은 보다 더 확산되면 좋겠다. 다만, 농산어촌 교회는 지역 농어민과 더불어 도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싶은 이유와 매력을 느끼게 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과 유기농산물에 관심이 높아졌고 먹거리의 신뢰도와 안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환경 농수산물의 개발과 유통을 추진하거나 농수산물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대형유통망과의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교단에서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셋째, 오늘날에 농산어촌은 더 이상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농산어촌은 농수산물을 가공하고 직거래로 유통하는 2차 산업도 하고 농산어촌을 잘 가꾸어 지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산업과 휴양산업을 일구어 내는 3차 산업의 현장이기도 하다.⁵⁾ 심지어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농업이 최근 등장하면서 농산어촌은 4차 산업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화, 공업화의 폐해로 인해 현재 농산어촌 공동체가 붕괴해온 마당에 20세기 산업화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도리어 자연에 근거한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후위기를 만들어 낸 현대 산업 구조 및 생활방식에 대안적 모델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이라는 농산어촌만의 3차 산업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 투어리즘이란 “도시민이 ‘자연환경이 아름다움 농산어촌지역을 방문하여 자연, 문화, 사람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류형 여가활동’”⁶⁾을 말한다. 이미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 문화와 레저 문화가 발달했고 지방 곳곳에 캠핑장과 펜션들이 즐비하게 세워졌다. 그러나 대체로 캠핑장과 펜션 중심의 여가 문화는 여전히 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역 마을과 연계되지 못하는 기존 관광산업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⁷⁾ 성공적인 그린 투어리즘은 농산어촌 마을 주민이 합의 수용 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형태이며⁸⁾ 보는 관광보다는 체험형 관광을 지

5) 현의송, 『문화를 파는 농촌에 희망이 있다』, (서울: 농민신문사, 2009), 서문 2페이지.

6) 다나카 미쓰루 외, 『그린 투어리즘: 도시와 농산어촌 공생하기』, 권위주 옮김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2009), 21.

7) 위의 책, 32.

8) 위의 책, 57-73.

향한다.⁹⁾ 체험의 주제는 농산어촌 지역의 자연경관, 친환경 농장, 문화유산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농산어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도 이러한 그린 투어리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회가 마을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활기와 경제에 기여를 한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농산어촌 선교와 교회 부흥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나아가 농산어촌 교회가 직접 그린 투어리즘을 진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도시 교회와 농산어촌 교회가 교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나 성도 중 누군가 친환경 농장을 운영한다면 그 농장을 체험형 농장으로 바꾸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일반인들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매결연 맺은 도시 교회 교인들과 그 자녀들이 농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친환경 농사를 체험할 수 있다.

필자도 몇 년 전에 사는 곳 근처 지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농부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경험이 있다. 1년 동안 매주 1회씩 가서 농사를 체험하고 온 가족이 벼를 심고 추수하는 일을 통해 가족의 추억이 생겼을 뿐 아니라 농사의 소중함을 몸으로 깨닫는 경험을 하였다. 생태계를 치유하고 농산어촌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 이상의 교육이 없을 것이다.

도시교회 성도들이 농산어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 체험을 하고 주일 예배를 해당 교회에서 드리고 오는 것도 농산어촌 교회를 돕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농산어촌 교회의 그린 투어리즘 프로그램이 교회 여건에 따라 농장체험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 및 문화유산 체험이 될 수도 있다. 도시교회 성도들이 쉼을 위해 레저 산업에 쓸 돈

을 농산어촌 교회와 그 마을에 쓸 수 있다면 보다 더 의미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시 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농산어촌 교회의 그린 투어리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따라서 이를 통해 농산어촌 교회는 신앙인들의 생태감수성 및 문화감수성을 키우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농산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가 서로 베풀고 배우며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초대 교회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도 바울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로마서 1장 12절)라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이웃에게 빛진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농산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 모두 빛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기후위기와 식량 위기 시대에 농산어촌 공동체를 함께 일으켜 나가는 미래를 꿈꾸어 본다.

9) 현의송, 『문화를 파는 농촌에 희망이 있다』, 39,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농촌선교주일을 지켜주시요!!**

(웨슬리안타임즈2022.4.13. 농촌선교주일선포식 호소문)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6년 총회에서 농촌선교는 교단차원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며,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감리교인들의 마음 속에 농촌교회가 다시 자리잡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가위 지난 첫 주일을 농촌선교주일로 지키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매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농촌선교의 과제를 주제로 내걸고 농촌선교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리 많은 관심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교국 산하 감리교 농어촌선교회는 농촌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장기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향후 10년동안 <농촌교회를 살립니다>는 기치하에 농촌선교주일지킴이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농어촌선교위원회는 그동안 농촌사회와 농촌교회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공유하며, 농촌교회가 중심이 되어 농촌사회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농촌선교훈련원을 통하여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아울러 농민기본소득제도의 제정을 위해 수년간 힘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에 빈 주택과 농토를 이용

한 '돌봄농장'(Care Farm)을 형성하는 지역모델을 창출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마을기업의 모델의 사례도 공유하는 등 농촌교회가 감당하고 담당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각의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더 창의적인 접근과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선교위원회는 이러한 농촌교회와 농촌사회 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특별히 농촌선교주일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토양을 형성하는 사역입니다. 2022년 농촌선교주일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감리교회가 농어산촌 지역의 감리교회의 생존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를 이루며, 특별히 올해 초에 모인 제1차 농어촌선교위원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농촌교회의 보다 창의적인 농촌살리기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공모형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확대하는 일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매 10년마다 진행되는 <농어산촌 교회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농어산촌 교회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미래를 열어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이에 올해 농촌선교주일을 통해 각 교회로부터 봉헌되는 농촌선교주일헌금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재난과 긴급한 돌봄을 요청하는 농촌교회 지원
 - 2) 공모사업지원 - 교회가 주도하는 마을살리기 사업
 - 3) 제3차 농어산촌 교회 실태조사사업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교회의 교역자들과 교우 여러분!

2022년 농촌선교주일(9월 18일, 추석직후 첫 주일) 성수에 참여해주시요.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리고 농촌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요. 주일예배헌금을 보내주시면 농촌교회가 농촌사회를 살려내는 농촌선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농촌교회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되살려내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농촌교회를 품어 안으시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12일 고난주간에

감리교 농어촌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종구 목사와 위원 일동

남부연회 김명준 목사, 이요한 목사	충북연회 김일형 목사
충청연회 이종명 목사	동부연회 박순웅 목사
중부연회 이 현 목사, 이인구 목사	중앙연회 조현태 목사
삼남연회 노재화 목사	훈련원 차흥도 목사, 황은경 목사

후원 계좌

우리은행 142-242485-13-149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농촌선교주일 공동기도문]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기뻐하신
이 세상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
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자연재해,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전쟁
으로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명보
다 눈앞의 이익에 가치를 두었던 결과입니다. 그 틈에서 우리나라는 낮은
식량 자급율, 농촌인구 초고령화로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시화율 90%의 그늘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지혜를 잃은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법칙과 순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 농법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살려내는 농법으로 전
환되게 하옵소서.

크고 눈에 보기 좋은 농산물을 찾기보다는 순리대로 생산하여 생명을 품
은 농산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더 이상 소비주의에 빠져 흥청대지 않게 하시고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삶

의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씨앗 한 톨, 잎과 열매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교회는 생명의 가치와 기능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사랑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체험적인 교육에 힘 쏟아 잃어버린 감각을 되살려내는 일에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긴밀히 협력하며 상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악해져 가는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희망 잃지 않고 보살피고 살려내는 살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농촌선교주일 교독문]

인도자 :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회 중 :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인도자 :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회 중 :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인도자 :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회 중 :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4: 6-8)

인도자 :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회 중 :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인도자 :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회 중 :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도자 :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회 중 :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 10-12)

인도자 :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회 중 :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같이)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133편 1-3)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생명의 밥으로 오시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땅 온 마을에 가득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빛은 흠과 생명을 보듬어 안은 땅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며,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농부의 땀과 자연의 기운을 통해 생명을 풍성케 하심을 믿으며, 흠에서 배우고 흠을 돌보며 생명을 일구느라 땀을 흘리는 농부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믿나이다.

땅은 더럽힐 수 없으며, 결코 사고 팔 수 없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 삶과 일을 나누고 섬기는 농촌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온 식구가 일한 뒤에 나누는 밥상이 진정한 주님의 성찬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논과 밭에서 일하는 가운데 죽임의 기운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만물에 깃들어 모든 것을 새롭게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짐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도와야 살 수 있다
요한복음 15:1-12

조남권 목사
(남부연회 공주지방회 공암교회)

[본 설교문은 2007년 9월 ~ 2022년 3월 말까지 시무한 공주지방 건동교회를 배경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농촌사회와 농촌교회에 대한 사회학적이고 신학적인 다양한 논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설교는 건동교회가 속한 작은 농촌 공간을 배경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농촌과 농촌교회에 대한 거대한 담론보다는 작은 농촌사회에서 목회하며 느꼈던 것을 설교로 작성하였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 감리회 총회 결의 이후 지켜오고 있는 ‘농촌선교주일’입니다. 흔히 농촌교회를 ‘어머니교회’라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모판 삼아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농촌교회는 이농으로 인한 교인감소와 기존 성도의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년 안에 많은 농촌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 농촌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농촌교회 스스로의 자립 의지가 필요합니다.

농촌교회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여러 담론이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상징되는 경제구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한 젊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도시로 이농하는 현상,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붕괴 등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붕괴는 곧바로 농촌교회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농촌교회가 재정적인 문제로 낡은 예배당 수리 하나 하기도 벅찬 게 오늘 농촌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농촌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농촌교회 스스로의 자립 의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무하던 견동교회는 “우리교회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교회 재정 확보를 위해 공동 농사터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짓는 농사 외에 교회 재정을 위한 농사터를 별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농촌교회라는 환경을 이기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견동교회가 자립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활동이 ‘병 모으기’입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교회 회원들이지만, 1년에 3-4회에 걸쳐 병 모으기를 합니다. 소주병, 맥주병을 모아 농협 하나로 마트에 판매합니다. 병은 한번 수거할 때 3천개 이상 합니다. 농촌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술 문화가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을 모아 농협 마트에 가서, 각 제조사 별로 다시 일일이 선별하여 박스에 넣어야 이 일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하여 모아 진 수입은 빈 병 값이 오르기 전에는 12만원 정도, 빈 병 값이 100원으로 오른 후에는 3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모아진 수익금으로 적금을 붓고 이것으로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이걸 낭비입니다. 건장한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지긋한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루 반나절 꼬박 일해서 모은 액수치고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견동교회는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식을 통해 자립하는 농촌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농어촌 교회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 외부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농촌교회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잠시 왔다 떠난다는 생각으로 농촌교회를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오랫동안 장기목회 하면서 농촌교회를 섬기는 헌신적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좋은 농촌교회의 모델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현실에 잘 적용하는 가운데 목회자 또한 오랫동안 성실하게 섬길 수 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 농촌교회 형편은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농촌에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자란 내가 농촌목회를 하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100만원 수입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소작농입니다. 적은 논밭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민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정성 다해 농작물을 심어 팔아도 어떤 경우에는 그 밭에서 일 년에 몇십만 원도 못 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농사 규모와 농사 종류에 따라 수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촌에도 특용작물이나 하우스 그리고 축사를 크게 하여 수입을 많이 얻는 농가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농가는 농사만 지어서는 제대로 된 수입을 거두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네 농촌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여 농사짓는 분들 가운데 65세 이상 어른들에게는 최저 생계비 개념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액수는 매달 50만원 정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제법 있습니다. 작게는 비료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직불금 지원까지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을 위한 지원 방식이 정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부는 농가 개별 지원보다는 산업화 측면을 강조한 지원이 있고, 어느 정부는 농가 개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게 있습니다. 농촌 목회자의 소견으로는 개별 농가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농촌선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농촌을 생각하는 여러 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 개개인에게 매달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보전해 주자는 운동입니다. 이럴 경우 연간 8조 3,412억 원의 재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운동이니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농촌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 대부분이 먹거리는 자급자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정 부분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낼 수 있는 생활비가 필요한데, 일정 정도의 <농민기본소득>은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뿐 아니라 농촌의 비전교회 목회자에 대한 <기본소득>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이 정부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 농촌 목회자에 대한 기본소득은 우리 교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감독선거 할 때 한 마디 던지는 공약이 아니라, 우리 감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감리회 모든 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셋째,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는 상생할 수 있습니다.

농촌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농촌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낼만 합니다. 풍성하지는 않아도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농촌교회는 목돈이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처럼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동교회의 경우 교회 건축할 때 서울 정동제일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다. <정동제일교회 개척선교회> 후원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정동제일교회 청년부와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하여 정동교회로부터 여름성경학교 봉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동제일교회 청년부 담당 목회자는 김종구 목사님(현재 양천지방세신교회 시무) 이었는데, 김 목사가 다른 교회로 부임하여 시무할 때도 그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봉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견동교회는 농

촌교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이들이 많이 모일 때는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여도 동네마다 한두 명의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견동교회는 도시의 교회와 여름성경학교를 매개로 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움은 농촌교회인 견동교회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견동교회에 봉사오는 도시교회의 청년들에게는 선교봉사의 장이 되었으며 신앙훈련의 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견동교회에 봉사오는 청년들(나중에는 남녀선교회도 함께 왔습니다)의 영적인 만족도가 무척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농촌교회든 도시교회든 개교회 혼자서만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침 우리 감리회는 본부를 중심으로 각 연회와 지방이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서부연회를 재건하기 위해 교회별로 서부연회 산하 어느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듯이, 도시의 지방과 농촌이 많은 지방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았으면 합니다. 모든 감리교회 도시 지방은 농촌 지방과 의무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함께 상생하며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회에는 새로운 선교를 개척하는 일환이 될 것이며, 농촌교회는 든든한 영적 후원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감리회에 속한 모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한배를 탔다는 공동체 의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어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요한복음 15:1-12

장석재 목사
(삼남연회 부산서지방회 불꽃교회)

오늘날 도시와 농촌은 경계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른 생활 패턴이 다를 뿐입니다. 도시생활자들은 꼭 짜여진 틀에 매여서 별집같이 수십 층을 쌓아올린 빌딩숲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짜여진 콘베이어 벨트에 자신을 맡기고 하루를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취미도 오락도 모두 그 틀에 박힌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하늘이 없으니 별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나무와 바람처럼 자연을 느낄 숲이 없으니 숨쉬고 사는 것이 참 기특하다 여깁니다.

그에 비하면 농촌생활자들은 높고 푸른 하늘과 작열하는 태양과 밤이면 하늘을 총총히 수놓는 달과 별들이 있고 탁트인 푸른 벌판과 나무들이 무성한 벌판과 강과 개울이 흐르고 있는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움직임이 살아있음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의 삶은 참으로 농사라는 고달픈 노동과 유통구조의 왜곡으로 불안한 영농활동에 시달

리기 일쑤입니다. 땀흘려지은 농사가 풍년이 되어도 가격이 폭락하여 헛수고를 하고, 홍수와 가뭄으로 자연재해를 입어 지속되고 가중되는 경제적인 가난에 시달립니다. 이처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2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런 찬송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 붙어
있도 피고 꽃피워 열매를 맺자 주령주령 소담한 포도송이를”
최영일 장로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 만드신 노래입니다.

지금 들으면 섬짓한 내용인데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잘도 따라 불렀습니다.

목회자로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열매맺기 강박증후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에서 출발하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 오는 열등감과 열패감은 항상 나를 압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사역자로 부름 받아서 결과물이 시원치 않을 때 오는 강박관념이 나를 찍어 누른다 할 수 있습니다.

-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4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

히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읽으니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희가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겠다는 행복한 약속입니다.

괜히 세미나 찾아다니고 목회계획을 끙끙거리며 세워보고, 소그룹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제자교육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지인 나에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만 있으면 만사 OK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책임은 그분이 지십니다. 열매는 그분이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분 안에 거하려면 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어야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수액을 보내면 수액을 받고 태양빛 아래서 따사로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잎을 피워내고 그냥 백프로 자신을 죽이고 비워야합니다. 참으로 징그럽도록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접고 자신의 뜻도 접고 그냥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포도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확 인사살 하시듯이 5절 이하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책을 끙끙거리며 주석하고 사색하고 요약하고 요점을 추려서 새벽강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국어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시집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우들에게 아멘을 강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을 걸만큼 확신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전히 그 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강박관념만 남고, 현실은 뜨거운 심장 뛰는 짐승으로 하루 세끼 밥을 해치우고 살아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진리의 선언 앞에서 나는 좌절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도피처를 찾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이 선언이 너무 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친구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동역자라고 하시더니,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가지노릇 하여 내게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가지요 열매를 맺고, 떨어져나가면 말라버려서 버려집니다.

7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온전하게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차원이 다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의 의지와 뜻과 생각

과 판단을 다 내려놓으면 나의 말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에게 그분의 말씀의 권능이 작용하면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같이 예수님도 가지요 제자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고백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10)

사랑의 차원은 모든 관계의 완성단계입니다. 이제 가지인 우리와 포도나무인 예수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운명공동체입니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기쁨의 차원을 줍니다. 가지와 나무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사이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고받으며 피어날 수 있습

니다.

12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도시교회도 농촌교회도 모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는 소 닭처다보듯이 농촌교회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나무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수행할 때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16회 농촌선교주일

2022년 9월 18일 주일

농촌선교주일 자료집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